

보도시점 2025. 1. 17.(금) 23:00 (국제엠바고) 배포 2025. 1. 17.(금) 15:00

국제통화기금(IMF),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5년 세계 3.3%, 한국 2.0% 성장 전망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17일(금) 23시(美 워싱턴 D.C. 현지 시각 9시) 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제통화기금은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월·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우리나라 포함)으로 한 수정 전망

먼저, 국제통화기금은 유로존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성장을 전망 상향에 힘입어,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3%로 전망하였다. 다만, 이는 ‘00~‘19년 연평균 성장률(3.7%)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하였다.

* 상향조정(%p): 미국(+0.5), 중국(+0.1), 영국(+0.1), 스페인(+0.2) 등

하향조정(%p): 독일(△0.5), 캐나다(△0.4), 프랑스(△0.3), 이탈리아(△0.1) 등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 ‘25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1%p 상향된 1.9%로 내다보았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2.7%) 성장률은 자산 효과(Wealth effects)에 따른 소비 강세, 완화된 통화정책 및 안정적 금융 여건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반면, 지정학적 긴장 지속, 제조업 분야 약세 등으로 독일(0.3%), 프랑스(0.8%), 이탈리아(0.7%) 등 유로존에 대해서는 성장률 둔화를 전망하였다. 주요 7개국(G7)과 유로존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에서는 실질임금 회복에 따른 소비 진작 등 긍정적 효과와 무역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감소 등 부정적 효과가 균형을 이루며 2.1%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25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10월 전망 대비 △0.2%p 하향한 2.0%로 전망하였다. 이는 지난 연례협의(11.7~20) 전망과 동일하며, 정부, 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 주요기관 ‘25년 성장 전망(%): (정부) 1.8 (한은) 1.9 (KDI) 2.0 (OECD) 2.1

신흥개도국 그룹(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155개국) ‘25년 성장률은 10월 전망과 동일한 4.2%로 전망되었다. 중국(4.6%)에서는 대규모 부양 정책이 높아진 무역 불확실성과 자산시장 부진의 부정적 영향을 보완할 것으로 평가하였고, 인도(6.5%)는 지난 10월 전망과 동일하게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을 예상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 위험요인이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확장적 재정정책, 이민 정책 등을 위험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 규제 완화 정책이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 신흥국 자본 이탈을 초래하여 세계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이민 제한 정책이 무역 갈등 심화, 노동력 공급 차질을 야기함으로써 미국과 세계경제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한편, 세계 경제 상방요인으로는 무역협정 추가 체결 등 자유무역 기조 확대와 함께 노동력 확충, 경쟁 촉진, 혁신 지원 등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은 국가별 상황에 맞게 물가, 성장, 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지속가능한 부채 관리를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과 함께 성장 친화적 재정 투자 및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자본이동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일시적인 외환시장 개입, 적절한 거시건전성 조치 도입과 급격한 위기 발생 시 자본 흐름 제한조치 활용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 노동시장·디지털화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과 함께 무역 분절화 방지를 위한 다자간 무역 협력 강화 노력을 촉구하였다.

※ 동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IMF 홈페이지(www.imf.org)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	책임자	팀 장 고영욱 (044-215-4840)
		담당자	사무관 류성열 (sung126126@korea.kr)

참고

'25.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p)

	'24년	'25년			'26년		
		'24.10월 전망 (A)	'25.1월 전망 (B)	조정폭 (B-A)	'24.10월 전망 (C)	'25.1월 전망 (D)	조정폭 (D-C)
세 계	3.2	3.2	3.3	+0.1	3.3	3.3	0.0
선진국	1.7	1.8	1.9	+0.1	1.8	1.8	0.0
미국	2.8	2.2	2.7	+0.5	2.0	2.1	+0.1
유로존	0.8	1.2	1.0	△0.2	1.5	1.4	△0.1
독일	△0.2	0.8	0.3	△0.5	1.4	1.1	△0.3
프랑스	1.1	1.1	0.8	△0.3	1.3	1.1	△0.2
이탈리아	0.6	0.8	0.7	△0.1	0.7	0.9	+0.2
스페인	3.1	2.1	2.3	+0.2	1.8	1.8	0.0
일본	△0.2	1.1	1.1	0.0	0.8	0.8	0.0
영국	0.9	1.5	1.6	+0.1	1.5	1.5	0.0
캐나다	1.3	2.4	2.0	△0.4	2.0	2.0	0.0
한국	2.2	2.2	2.0	△0.2	2.2	2.1	△0.1
호주	1.2	2.1	2.1	0.0	2.2	2.2	0.0
기타 선진국	2.0	2.2	2.1	△0.1	2.3	2.3	0.0
신흥개도국	4.2	4.2	4.2	0.0	4.2	4.3	+0.1
중국	4.8	4.5	4.6	+0.1	4.1	4.5	+0.4
인도	6.5	6.5	6.5	0.0	6.5	6.5	0.0
러시아	3.8	1.3	1.4	+0.1	1.2	1.2	0.0
브라질	3.7	2.2	2.2	0.0	2.3	2.2	△0.1
멕시코	1.8	1.3	1.4	+0.1	2.0	2.0	0.0
사우디	1.4	4.6	3.3	△1.3	4.4	4.1	△0.3
남아공	0.8	1.5	1.5	0.0	1.5	1.6	+0.1